

부동산 침체 직격탄... 광주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 ‘최다’

작년 1232건 총 2219억...2위 전남도 1321억 달해

HUG 회수율 5.2% 역대 최저...“공적 부담 커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가 지난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 사고액이 총 3540억원으로, 광주와 전남이 1, 2위를 나란히 차지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중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원,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액은 5197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 중 비수도권 사고 비중이 96%에 달하고, 광주가 2219억원(1232건)으로 전

국에서 사고액이 가장 많았다. 전남도 1321억원(935건)으로 뒤를 이어 두 지역이 전체 사고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88억원), 경북(337억원) 순이었다.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일정 기간 버텼지만, 지방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그 영향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보증 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 임대보증금보증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사고 세대수	524세대	767세대	1256세대	2668세대	4489세대
사고 금액	409억원	510억원	1387억원	3308억원	6795억원
대위변제 금액	463억원	463억원	802억원	2148억원	5197억원
회수 금액	350억원	207억원	155억원	382억원	268억원
회수율	75.6%	44.7%	19.3%	17.8%	5.2%



현재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C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하고 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

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

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을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빛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했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2023년 1387억원(1256가구), 2024년 3308억원(2668가구), 지난해 6795억원(4489가구)으로 급증했다.

법인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HUG의 대위변제액도 2021년과 2022년 463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에서

지난해 5197억원까지 증가했다.

급증한 대위변제액과는 다르게 공적 보증의 회수 가능성은 붕괴 단계다.

법인 임대보증의 회수율은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로 점점 떨어지다가 지난해 5.2%로 급락했다.

이는 연도별 역대 최저이자 처음으로 한 자릿수로 떨어진 수치다.

사고액이 고스란히 HUG의 손실로 이어지며 공적 부담이 점차 커지는 꼴이다.

HUG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고금리 기조 속에서 개인보다는 상대적으로 버틸 여력이 있던 법인 임대사업자들이 한계에 봉착하며 연쇄 도산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오는 26일 마감하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0일 북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김학선 광주국세청장, 부가가치세 신고 현장 살피

북광주세무서 신고센터 운영 현황 점검...“적극 세정 지원”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오는 26일 마감하는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을 맞아 지난 20일 북광주세무서 신고센터를 방문했다.

김 청장은 신고 안내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납

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방문 납세자가 편리하고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안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은 올해 개선된 ‘신고서 미리채움’, ‘생성형 AI홈택스 챗봇 상

담 등을 이용해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홈택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의 경우 올해 전자계산서 매출·매입합계, 면세수입 금액 등 4개를 추가한 총 22항목을 안내한다.

광주국세청은 이와 함께 2025년 1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

소한 일반과세자(8만2000명)와 간이과세자 전체(부동산임대업종 제외, 3만명)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오는 3월 26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자연재해와 사업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예대출 완화...가중치 5%p ↓

지방 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은행권 대출을 늘리도록 예대출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비수도권 대출 여력을 최대 21조원 추가로 늘린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비수도권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예대출 가중치를 낮추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5급3특 지역특화 자금공급’을 위한 ‘지방 우대금융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앞서 정책금융 분야에서 ‘지방금융 공급 확대 목표제’를 도입해 지방 공급 비중을 2025년 약 40%에서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은행권 예대출 산출 시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외 지방에 소재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대출 가중치를 5%p를 하향해 각각 80%, 95%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전남도·공항공사·관광재단, 여행업계 지원 ‘맞손’

인센티브·관광상품 개발
국제선 활용 수요 회복 추진

전남도가 무안국제공항 운항 중단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은 지역 여행업계 지원과 관광 수요 회복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공항 운영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관광산업의 버팀목을 마련해 지역경제 위축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전남도는 21일 한국공항공사,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연계 여행업계 지원 및 전남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무안공항 국제선 운항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누적된 지역 여행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공항 정상화 이전에도 관광 수요를 유지·회복할 수 있는 실질적 대응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지방공항 국제노선을 활용한 여행사 인센티브 공동 운영 △전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협력 △관광·공항 관련 데이터 공유를 통한 맞춤형 마케팅 △



전남도는 21일 한국공항공사, 전남관광재단과 함께 무안국제공항 연계 여행업계 지원 및 전남 관광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무안국제공항 연계 신규 협력사업 발굴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전남 관광상품을 유치·판매하는 여행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추진해, 단기적으로는 여행업계의 자금 부담을 덜고 중장기적으로는 상품 경쟁력을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단발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제노선을 활용한 여행사 인센티브 공동 지원 체계로 확대한다. 이미 확정된 정부예산 가운데 △전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홍보 지원비 6억원 △여행업계 역량 강화 교

육비 1억원을 투입해 광주·전남 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사업 경쟁력 제고에 나선다.

아울러 국비 10억원이 투입되는 전남관광기업 지원센터 조성 사업을 통해 관광기업 육성, 창업·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 중장기 관광산업 기반 구축도 병행 추진한다.

외래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도 강화된다. 전남도는 관련 예산 13억원을 활용해 개발된 관광상품이 실제 해외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홍보, 공동 판산 가운데 △전남 특화 관광상품 개발·홍보 지원비 6억원 △여행업계 역량 강화 교

광주은행, NICE 손잡고 ‘생산적 금융’ 확대

지방은행 첫 협약...ESG 데이터 활용 잠재기업 선제 발굴

광주은행(은행장 정일선)은 21일 본점에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NICE평가정보㈜(대표이사 김중운)와 지방은행 최초로 ESG 데이터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NICE평가정보의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 역량과 광주은행의 지역 밀착형 영업망을 결합해 성장 가능성은 높지만 담보 부족 등으로 금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ESG 데이터를 기업 평가에 활용해 재무 요소뿐 아니라 비재무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융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에 발맞춰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인증 결과를 여신심사

에 적극 반영해 친환경·저탄소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해 실질적인 경영 안정을 돕는 상생금융을 실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역 산업의 체질 개선 뿐만 아니라 금융 지원이 다시 지역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앞장선다.

정일선 광주은행장은 “지역 경제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생산적 금융의 도입이 중요한 시점이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지역기업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지역경제 제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광주은행은 21일 본점에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NICE평가정보㈜와 지방은행 최초로 ESG 데이터 기반 ‘생산적 금융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차 시가총액 100조...장중 55만원 최고가

코스피도 4900선 회복

현대차 주가가 15% 가까이 급등하며 사상 처음 종가 기준 시가총액이 100조원을 돌파했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현대차 시가총액은 112조 4120억원으로 4위인 LG에너지솔루션(92조3130억원)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전날에는 장중 100조원을 터치했지만 곧바로 내려와 98조789억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현대차는 지속되는 로보틱스 모멘텀에 장중 역대 최고가를 경신해 55만 1000원까지 올랐다가 14.61% 오른 54만 9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또한 기아(5.00%), 현대모비스(8.09%) 등 그룹주도 함께 상승했다.

코스피는 전장보다 76.81p(1.57%) 내

린 4808.94로 출발해 24.18p(0.49%) 오른 4909.93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장중 등락을 거듭하다 반도체주와 자동차주를 중심으로 장 후반 상승세로 돌아섰다. 장중 한때 4910.54까지 오르기에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4457억원, 3219억원 순매수하고 개인이 9965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반면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25.08p(2.57%) 내린 951.29에 장을 마치며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수는 전장보다 18.32p(1.88%) 내린 958.05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다. 한때 933.31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21억원, 660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개인은 9561억원 순매수하며 저가 매수에 나섰다.

임재용 기자 djawodyd0316@gwangnam.co.kr